

사라져가는 '균형 개발'

수도권 산단조성 때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전남 '분양가 매력' 사라져 기업유치 차질

내년부터 2년간 수도권에서도 산단지를 조성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그동안 활발하게 진행됐던 수도권 기업 유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 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

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한시적 규제 유예' 합동회의에서 수도권 산단 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내용을 포함한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 12 개를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현재 산단단지 조성 시 비수도권은 농지보전부담금 빚을 보고했다.

이 100% 면제되지만, 수도권은 전액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0년 1월부터 2년간 수도권에 산단단지를 만들 때도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해줄 계획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해 개발할 때 물리는 돈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30% 규모다.

전남 등 지방의 경우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농지보전을 해제하고 실시·승인을 하기 때문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산단단지 분양자가 낮아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산단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내년부터 수도권 산단단지도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됨에 따라 분양자가 낮아져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산단단지 이전이 주춤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 산단지 매력은 낮은 분양가였는데 수도권 산단단지도 농지부담금이 면제되면 분양자가 기존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될 경우 지방 산단단지는 수도권 산단단지에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지역 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민정·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에 반대, 아편에 납았다. 이후 당선 가능성이 큰 서울 출마 권유를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출마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하지만, 1992년 총선에서 낙선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부산시장 선거, 2000년 총선에서 잇따라 낙선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나서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매진했다. 취임 첫

이 제도는 작년 말로 시효가 만료됐으나 7월부터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무현 서거' 무엇을 남겼나

2 지역주의 타파 노력

'망국병 치유' 필생 과업으로

▶ 관련기사 2·3·4·7면

정치인 노무현에게 '지역주의 타파'는 필생의 과업이자 최대 화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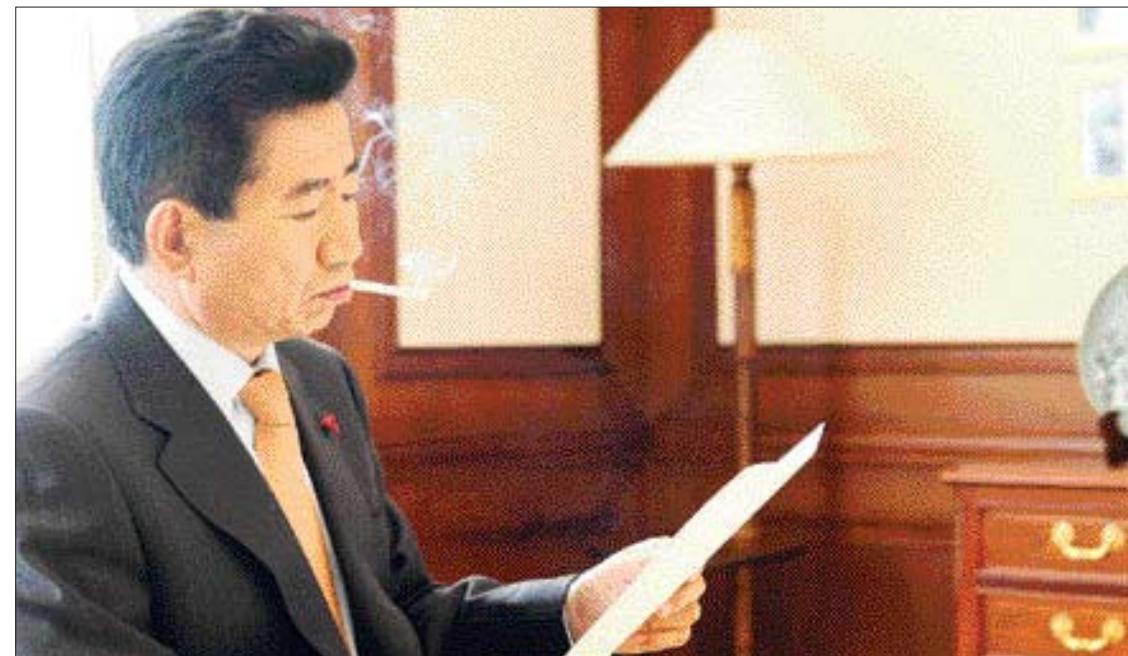
'바보 노무현'도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해 당선이 안 될 줄 알면서도 과감히 뛰어들어 줄곧 낙선한 것을 가리켜 만들어진 별명이었다.

그는 지역주의를 뿌리 뽑아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려 했다. 부산에서 '지역 소수당' 후보로 3번 도전 외에도 그는 민주당 분당, 선거제도 개편 요구, 대연정 제안 등 집요한 정도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지역 주의에 온몸으로 '저항'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민정·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에 반대, 아편에 납았다. 이후 당선 가능성이 큰 서울 출마 권유를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출마하는 모험을 감행했다.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하지만, 1992년 총선에서 낙선한 것을 시작으로 1995년 부산시장 선거, 2000년 총선에서 잇따라 낙선했다.

당시 무모하다고 여겨졌던 부산 출마는 낙선으로 이어졌지만 전국적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며 '노사모' 등 든든한 국민적 지지그룹을 얻었고 결국 광주 경선 승리와 대통령 당선의 밀가루를 뒤집어쳤다.

그는 대통령이 되고나서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매진했다. 취임 첫



노장은 골초?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의위원회가 27일 생전 모습이 담긴 노 전 대통령 사진 48장을 공개해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2007년 1월 9일 TV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담배 피우는 노 전 대통령. ▶미공개 사진 확보 3면. 전체 사진 인터넷 광주일보(www.kwangju.co.kr).

〈장의위 제공〉

세 차례 낙선 '바보 노무현' 별명도

요지부동 지역 주의 영원한 과제로

하지만, 그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지나친 집착은 '정치적 무리수'로 이어지기도 했다. 2005년 7월 한나리당에 대한 대연정 제안이 바로 그것. 이는 한나리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부터도 외면을 받았고, 그의 정치적 입지를 악화시켰다.

하지만, 그가 갈망했던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는 요지부동이다. 그의 죽음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지역주의 타파라는 큰 과제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추가 유서가 있거나 조작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경호관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다음 날 광주전철로 정토원 원장에게 "경찰에서 대통령과 함께 정토원에 갔다는 진술을 했다. 원장님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연합뉴스〉

"盧前 대통령, 경호관 심부름 보내고 투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당일 수행 경호관을 심부름을 보낸 뒤 훌로 있다가 투신했으며 최소 28분 동안 '경호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던 밝혀졌다. (관련기사 4면)

노 전 대통령 서거경위를 수사하는 경남경찰청은 27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관은 전 대통령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충격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꼈고, 신

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하위진술을 했다가 사회적 비난이 일고 동료 경호관의 설득으로 심경변화를 일으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의 유서와 관련해서는

국민장 공고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을 다음과 같이 거행하게 되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시 : 2009년 5월 28일 (금) 11:00

● 장 소 : 경복궁 암자

故 노무현 前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공동위원장 한승수 한명숙